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의 형상화 방식과 시대적 의미*

서혜은**

— <차 례> —

1. 서론
2. 여·당 참전 중국인 서사의 고전소설화 배경과 원인
3.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의 형상화 방식
4.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 형상화의 시대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은 중국 장편소설 <설인귀정동>·<서유기>·<당진연의>의 일부 서사를 개작한 작품이다. 조선 후기 강성했던 고구려 국력에 대한 갈망과 설인귀 서사가 유입되어 대중성을 확보하고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신격화된 고사가 전승되면서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간행된다.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서 설인귀는 귀족적 영웅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역행하는 모습으로, 당태종은 정복욕에 충실한 군주의 표상으로, 울지경덕은 충절의 화신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태종과 울지경덕의 형상은 <설인귀전>과 <울지경덕전>의 이본에 따른 차이가 있다.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 형상화된 당태종의 모습에는 비판적 시각이 부각되어 있지만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경우에는 우호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 세 작품에 형상화된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의 모습에는 조선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96차 추계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도움 말씀을 주신 엄태웅 선생님과 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대 요동 회복에 대한 염원과 한민족의 역량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이상적 통치자가 부재하는 조선의 현실과 이상적 통치자의 출현을 염원하는 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 여·당 전쟁, 고구려, 설인귀, 당태종, 울지경덕, 신격화, 정복옥, 요동

1. 서론

조선시대 유입된 중국소설은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면서 독자층의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연의>·<수호전>·<서유기>와 같은 장편소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 작품을 단편으로 개작한 <화용도>·<제마무전>·<타호무송>·<당태종전>·<손오공> 등과 같은 작품들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20세기 초까지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태공전>·<곽분양전>·<장자방전>·<설인귀전> 등 중국 변안소설이 상당수 단편으로 간행되었는데 현전하는 경판본 소설에서 영웅소설 다음으로 중국 변안소설의 비중이 많은 데서도 확인된다.¹⁾

이처럼 조선시대 간행되어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중국 변안소설 가운데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과 같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작품들이 여러 종 간행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단편으로 간행된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은 장편으로 유입된 <서유기>·<설인귀정동>·<당진연의>의 일부 서사를 개작한 작품이다. 하지만 <서유기>·<설인귀정동>·<당진연의>보다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의 방각본과 활자본 이본의 수가 더 많다. 따라서 <서유기>·<설인귀정

1) 서혜은, 「경판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1쪽.

동>·〈당진연의〉보다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이 더 많은 독자층의 호응을 받았을 가능성은 크다.

〈당태종전〉에는 당태종뿐만 아니라 울지경덕이 등장하며 〈설인귀전〉에는 설인귀와 함께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울지경덕전〉에는 울지경덕과 당태종이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공통적으로 여·당 전쟁에 참여한 중국인들이다. 그런데 작품과 이본에 따라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상이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인들의 여·당 전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전쟁에서 활약했던 중국 역사상의 실존 인물인 태종·설인귀·울지경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여·당 전쟁은 고구려에 대한 당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 전쟁으로 당태종이 고구려 침략을 후회했던 것으로 『자치통감』의 기록에서 확인된다.²⁾ 그리고 태종이 참여한 1차 전쟁은 당의 大敗로 종결되었고 태종은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당 전쟁의 서사로 전개되는 〈설인귀전〉에서 역사적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 〈설인귀전〉에서는 태종이 지휘하는 당의 승리로 종결되는 서사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설인귀전〉은 〈설인귀정요사략〉·〈설당후전〉·〈설인귀정동〉과 같은 중국소설을 번안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렇다면 여·당 전쟁에 참

2)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기록한 『자치통감』의 내용 가운데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태종이 고구려 침략을 후회했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사마광, 『자치통감』, 서해문집, 2008, 355쪽;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바다출판사, 1998, 475~478쪽).

3) 서대석, 『군담소설과 〈설인귀전〉』,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282~293쪽; 이운석, 「〈설인귀전〉 이본고」, 「〈설인귀전〉 고」, 『〈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7~27, 34~37쪽; 이금재, 「〈설인귀전〉과 〈설인귀정동〉 수용과 그 의미」,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0, 3~76쪽; 김예령, 「〈설인귀전〉의 번

여한 설인귀의 서사는 이미 중국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화되어 향유된 것으로 보인다.⁴⁾

설인귀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에서도 활약했던 중국인이다. 설인귀와 여·당 전쟁에 대한 허구화된 서사가 조선 후기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생각된다.⁵⁾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통속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민족의식의 표출이라는 점 그리고 이 두 현상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는 통속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⁶⁾ 하지만 조선에서 간행되고 향유된 <설인귀전>의 서사와 중국에서 간행된 <설인귀정요사략>·<설당후전>·<설인귀정동>의 기본 서사는 비교적 유사하다.

<설인귀전>이 대중성을 획득했던 조선 후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역, 변안 양상 연구, 『관악어문연구』 29, 2004, 349~375쪽; 양승민, 「<설인귀전>의 소설사적 존재 의미, 『우리어문연구』 41, 2011, 490~404쪽; 이유진, 「<설인귀전>의 전승과 통속화 경향, 『중국학연구』 56, 2011, 55~68쪽; 장수연·민관동, 「설인귀 고사의 원천에 관한 일고-설인귀 고사의 국내 수용과 전승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4, 2011, 75~82쪽.

- 4) 박재연, 「<설인귀정요사략> 해제,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8, 1991, 46~73쪽; 『중국소설연구회보』 9, 1992, 30~50쪽; 『중국소설연구회보』 10, 1992, 62~83쪽; 『중국소설연구회보』 11, 1992, 73~93쪽.
- 5) <설인귀전>은 <숙향전>·<소대성전>·<심청전> 등의 작품과 함께 전기수가 낭독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조수삼, 「기이, 『추제집』 7).
- 6) 이윤석, 이유진, 양승민, 엄태웅은 통속적인 측면에서, 이금제는 민족의식을 표출한 것으로, 권도경과 김예령은 이분에 따라 이 두 가지 측면이 혼효되어 드러난다고 논의했다(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75쪽; 이유진(2011), 앞의 논문, 68~72쪽; 양승민(2011), 앞의 논문, 401~404쪽; 엄태웅, 「조선 후기 설인귀 인식의 맥락과 문학적 반영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9, 2011, 207~220쪽; 권도경,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 양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15, 2007, 286~291쪽; 김예령(2004), 앞의 논문, 366~368쪽).

같은 전쟁 후 끊임없이 중국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이다.⁷⁾ 그리고 여·당 전쟁은 23년 동안 지속된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한민족이 이민족의 침략에 가장 잘 대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은 변방의 여러 이민족은 굴복시켰으나 고구려만은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⁸⁾ 게다가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구려의 강성했던 국력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고 한다.⁹⁾ 그러므로 <설인귀전>의 대중성을 통속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인귀전>에는 설인귀뿐만 아니라 여·당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당 태종과 울지경덕도 등장한다. 그리고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 역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따라서 <설인귀전>뿐만 아니라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했을 때 여·당 전쟁의 서사로 전개되는 <설인귀전>이 조선 후기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현상에 대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작품과 이본에 따라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상이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당 전쟁과 참전 중국인들에 대한 조선인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의 여러 이본에 제시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형상화된 면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조선 후기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적국의 황제와 장수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작품들이

7)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조선 지배층의 중국 인식』, 푸른 역사, 2009, 216~237쪽.

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해동문화인쇄사, 1991, 4, 216쪽; 박경철, 『麗唐戰爭의 再認識』, 『동북아역사논총』 15, 2007, 155쪽.

9) 한명기, 『조선 시대 한중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고구려의 강성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2006, 337~366쪽.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설인귀전>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기에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은 조선 후기에 간행되어 활발하게 유통된 작품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의 여러 이본을 대상으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의 형상화 방식과 이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세 작품을 대상으로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의 실존 인물인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에 대한 논의는 고구려와 중국에 대한 조선인들의 견해를 고찰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먼저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과 같은 작품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세 작품에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형상화된 방식과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여·당 참전 중국인 서사의 고전소설화 배경과 원인

조선시대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과 같이 여·당 전쟁과 관련된 중국의 황제와 장수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작품이 간행되어 활발하게 유통된 것은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 연이어 발발했으며 중국 연의소설이 유입되어 활발하게 간행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이지만 이들은 조선시대 민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이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작품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1. 고구려 국력에 대한 갈망과 설인귀 서사의 유입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은 각각 <서유기>·<설인귀정동>·<당진연의>에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과 관련된 일부 서사를 차용하여 개작한 작품이다. <설인귀정동>의 경우 설인귀를 포함하여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등장하며 여·당 전쟁의 서사로 전개된다. 하지만 <서유기>와 <당진연의>는 각각 현장이 제자들과 서역국에서 불경을 가져오는 서사와 태종이 이민족을 정복하여 당을 건국하는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이 <설인귀전>과 함께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각각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인들의 여·당 전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설인귀전>에도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등장하며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에도 울지경덕과 당태종이 각각 등장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서유기>·<설인귀정동>·<당진연의>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이들 작품이 각각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으로 개작되어 간행된 조선 후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잔존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거듭된 호란 이후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간섭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태종전>·<설인귀전>·<울지경덕전>과 같은 작품이

10) 계승범(2009), 앞의 책, 같은 쪽.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강성했던 고구려의 국력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이 고구려를 수양제와 당태종의 침략을 물리쳤던 군사강국이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¹¹⁾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공통적으로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며 태종이 참여했던 1차 여·당 전쟁에서 태종은 사망했고 고구려는 승리했다.¹²⁾

고구려가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인식되는 것은 70여년에 걸친 수와 당의 침략 전쟁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의 고구려에 대한 질투와 증오는 대단했으며 당태종이 쓴 『진서』를 비롯하여 여러 역사서에서 고구려를 비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여·당 전쟁의 서사로 전개되는 <설인귀정요사략>이나 <설인귀정동>과 같은 작품이 중국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¹⁴⁾ 하지만 왜곡된 서사로 전개되는 <설인귀정요사략>에서도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했을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고구려의 강성한 국력과 고구려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확인된다.

11) 조선시대 중국의 지식인 역시 고구려를 군사 강국이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정진현, 『조선시대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18, 2004, 601~604쪽; 한명기, 『조선시대 한중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고구려의 강성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2006, 337~364쪽).

12) <설인귀전>의 서사는 이와 상반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설인귀정요사략>이나 <설인귀정동>과 달리 태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3) 김용만(1998), 앞의 책, 34~35쪽.

14)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는 설인귀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부각되어 있는데 『신당서』와 『구당서』에는 <설인귀전>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설인귀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해 보인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폐하! 이 백골들은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이곳에서 죽은 수양제의 이십만 대군이옵니다. 바로 그들의 해골이 이렇게 산처럼 쌓인 것입니다. 하온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중략) 한 노인이 아뢰었다. “옛날 양제의 대군이 패한 후 이곳에는 인골이 산처럼 쌓였었습니다. 신들은 중상을 입었다가 후에 살아났사온데 고구려인들이 죽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성을 세워 ‘사향성(思鄕城)’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¹⁵⁾

이처럼 고구려의 강성했던 국력은 중국에서도 인정받았다. <설인귀정요사략>은 조선 후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¹⁶⁾ 그러므로 중국에서 형성된 설인귀의 미화된 서사가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의 대항에서 강성함을 발휘했던 고구려 국력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래된 설인귀 서사는 조선에서 소설 <설인귀전>으로 개작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설인귀의 서사가 유입되고 <설인귀전>이 대중성을 확보했기에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도 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유입된 <설인귀정요사략>·<설당후전>·<설인귀정동>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간행된 <설인귀전>의 모든 이본에는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당태종전>과 <울지경덕전>은 각각 <서유기>와 <당진연의>의 일부 서사를 개작한 작품이지만 <서유기>와 <당진연의>에서 당태종과 울지경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다. 따

15) 박재연 역,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11, 1992, 74쪽.

16) <설인귀전>은 <설인귀정동>의 개작으로, <설인귀정요사략>이 가장 먼저 형성되고 난 후에 <설당후전>과 <설인귀정동>이 간행되었으며 <설인귀정요사략>은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민관동·장수연·김명신 공저, 『한국소설 중국 통속소설의 판본 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 244~245쪽).

라서 조선시대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된 후란 이후 중국의 간섭이 빈번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인의 고구려 국력에 대한 갈망과 함께 <설인귀정요사략>·<설당후전>·<설인귀정동>과 같은 설인귀의 서사가 중국에서 유입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2.2. 여·당 참전 중국인의 신격화와 그 고사의 전승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인귀정동>·<서유기>·<당진연의>보다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은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적국의 황제와 장수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공통적으로 이 세 인물들의 신격화된 고사가 전승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 형성되는 원인의 일부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설인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감악산의 산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고사들이 전승되고 있다.¹⁷⁾ 그리고 제주도에서 구전되고 있는 <세민황제본풀이>에서 당태종은 무속의 신으로 등장하며 울지경덕은 당태종의 충신이었던 위정·진숙보와 함께 門神으로 인식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고사가 『추재집』·『동국세시기』·『경도잡지』에 전승되고 있다.¹⁸⁾ 다음의 각 인용문은 신격화된 세 인물과 관

17) 권도경,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정신문화연구』 30, 2007, 14쪽; 권도경, 『설인귀 전설의 존재양상과 서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10, 2007, 407~410쪽; 변동명, 『전통시기의 감악산 숭배와 산신 설인귀』, 『역사학연구』 42, 2011, 1~39쪽.

련된 고사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① (상략)지혼자 올라가지구서 그 설인귀래는 비를 세워 놓구선 감악산에서 결과적으로 유명해가지구서 서울에서도 어린애 못 낳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글세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군부대 때문에 출입금지 지역 이 되어서 출입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서울에 애기 못낳는 사람이 설인귀 앞에서 얼마 기도를 드리고 참 옥동자를 얻었어요.(하략)¹⁹⁾

② (상략)소인은 세상에 모든 불상한 사람들/구제하지 못한 오늘날에는 저승을 간다할지라도 낮이 업혀서/저승왕을 대할 수가 업겠습니까/(중략)이리하니 세민황제가 크게 감동하야/지금에 자기가 얼마나잘하는이/매일장상에게 써돌든 것을 부스러위하며/온세상의 불상한 사람들/모조리 구제하여 야하리라는 것을 새삼스러히 통감하다(중략)그리하여 세민황제는 /모든 것을 매일 장상에게 의론하며/팔만대진경도보고, 불도법당기도(佛道法堂祈禱) 모든 활인적선지도를 마련하다²⁰⁾

③ 도화서(圖畫署)에서는 수성(壽星) 및 선녀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올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데, 이것을 세화(歲畫)라 한다. 그것으로 새해를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황금색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을 그려서 임금에게 바치는데 그 길이가 한 길이 넘는다. 이 그림을 모두 대궐문 양쪽에다 붙인다. 이것을 문배(門排)라 한다. (중략)속설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은 사천왕(四天王)의 신상(神像)

18) 울지경덕은 진숙보와 함께 19세기 서울 보문사 대웅전의 신중도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중, 『19세기 경기지역 신중도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47~48쪽).

19) 조희웅·노영근·임주영,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진 까닭(2)>, 『경기북부 구전자료집』 I, 박이정, 2001, 317쪽.

20) 박봉춘 구전, <세민황제본푸리(世民皇帝本解)>, 『조선 무속의 연구』 상, 조선인쇄주식회사, 1937, 308~309쪽.

이라고도 하고 혹은 당(唐)나라 초기 태종 때의 장군인 위지경(尉遲恭)과 진숙보(秦叔寶)라고도 하며, 붉은 도포를 입은 자는 위정공(魏鄭公)이라고 한다.²¹⁾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조선시대에는 설인 귀·당태종·울지경덕의 신격화된 고사가 전승되고 있었다. <세민황제본풀이>의 경우 <당태종전>의 영향으로 파생된 작품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작품 전체의 서사를 비교했을 때 <세민황제본풀이>가 <당태종전>의 영향으로 형성된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²⁾ 두 작품에서 죽은 태종이 저승에서 장상 부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서사는 공통되지만 <세민황제본풀이>의 전반부에서 당태종 백성을 괴롭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다가 죽어 저승을 갔다는 내용은 <당태종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²³⁾ 그리고 조수삼이 『추재집』의

21) 최대림 역,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1989, 23~24, 213~214쪽.

문에는 신의 형상을 그린 그림을 붙인다. 문 바깥에는 갑사가 마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철로 만든 복두와 금비늘이 달린 갑옷에 금간을 든 당나라 장군 진숙보이다. 다른 하나는 구리로 만든 투구와 금비늘이 달린 갑옷에 선화부를 든 울지공이다. 문 안에는 재상이 마주 보고 있는데 모두 검정색 복두를 썼으며 대홍색 포를 입고 각각 꽃을 꽂은 사람은 위정공 저수량이다(국립민속박물관, <추재집-세시기>, 『조선대 세시기』 I, 민속원, 2003, 31~32쪽).

22) 서대석과 정제호는 <세민황제본풀이>가 <당태종전>의 영향으로 창작되었을 것으로, 김유진은 <세민황제본풀이>의 영향으로 <당태종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논의했다(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68, 1~175쪽; 정제호, 『계주도 특수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연구-매일과 장상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4, 2014, 251쪽; 김유진, 『<당태종전> 연구』, 『청람어문교육』 4, 1991, 111쪽).

23) 또한 <당태종전>의 결말에 태종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장을 시켜 불경을 가져오게 한 후에 수록제를 행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만약 <당태종전>의 영향으로 <세민황제본풀이>가 형성되었다면 서두에 태종에 대한 내용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시기>를 쓴 시기가 1795년으로 밝혀져 있고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경도잡지』의 경우 정조 대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그렇다면 대체로 울지경덕과 진숙보의 고사는 18세기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세 인물이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며 여·당 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이들의 신격화 현상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크다. <춘향전>의 경판본에도 춘향의 집 대문에 울지경덕과 진숙보의 화상을 붙여둔 것으로 보아 두 인물은 조선시대 門神으로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④ 니도령 거동보쇼 춘향의 손목을 마조잡고 가슴이 도곤도곤 제두리씨가 식근식근 한손으로 억개집고 희희낙락 들어갈계 전후좌우 살펴보니 집치레도 황홀하다 뒤문씩 좌우의 울지경덕 중문의 진숙보 스면팔작 늙흔집을 입구즈로 지었는디(하략)²⁵⁾

이처럼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은 세 인물이 신격화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상이라 생각된다.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 신격화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비록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의 신격화 현상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이 각각 산신·무속의 신·문신으로 숭배된 고사가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은 세 인물이 민중들에게 이미 친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인귀정동>·<서유

24) 국립민속박물관(2003), 앞의 책, 22쪽; 최대립 역(1989), 앞의 책, 6~8쪽.

25) 경판 35장본 <춘향전 단>, 10-1쪽.

기>·<당진연의>이 조선에 유입되었지만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의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들이 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의 형상화 방식

설인귀를 제외하고 당태종과 울지경덕은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의 모습은 작품과 이본에 따라 상이하게 형상화되어 있기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의 경판본과 활자본을 대상으로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 설인귀 : 귀족적 영웅에서 민족적 영웅으로의 이행

중국에서 형성된 <설인귀정요사략>·<설인귀정동>과 같은 설인귀의 서사는 여·당 전쟁의 실제 역사와는 반대로 전개되며 여·당 전쟁에 참여했던 설인귀의 영웅적인 면모는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²⁶⁾ 『구당서』와 『신당서』에 수록된 <설인귀전>에서도 이러한 면모는 동일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의 설인귀에 대한 기록과 달리 허구화된 설인귀의 서사에서는 장사귀와의 갈등과 설인귀와 유소저의 애정담이 형성되어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설인귀전>에서 장사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갈등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설인귀정요사략>과 <설인귀정동>에서는 설인귀와 장사귀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설

26) 『구당서』와 『신당서』에도 <설인귀전>이 수록된 것을 감안한다면 당태종이 관여했던 여·당 전쟁의 대패에 대한 중국인들의 설욕과 극복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귀정동>에서는 설인귀와 유소저와의 애정담까지 추가되어 있다.

조선에서 개작된 <설인귀전> 역시 설인귀의 장사귀와의 갈등과 유소저와의 애정담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경판본에서는 유소저와의 애정담이, 활자본에서는 장사귀와의 갈등과 함께 합소문과의 갈등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 <설인귀전>의 경판본과 활자본의 서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판 40장본	경판 30장본	활자본
①	설인귀 부모의 죽음	"	설인귀의 유리결식과 자결 시도
②	설인귀의 유증세의 집 기거	"	설인귀의 왕무생, 류원외의 집 기거
③	설인귀와 유증세 딸 쫓겨남	"	左同
④	×	×	설인귀와 유소저의 혼인
⑤	당태종의 백포소장 현몽과 요동정벌 결심	左同	左同
⑥	설인귀의 동정 결심과 은갑·은투구·방천극·용총마 획득	"	설인귀와 주청의 만남과 동정 결심
⑦	설인귀와 장사귀의 만남	"	장사귀의 설인귀의 1차 투군 거부
⑧	×	左同	설인귀와 변홍해의 만남과 강도 칙결
⑨	×	"	장사귀의 설인귀의 2차 투군 거부
⑩	×	"	설인귀의 백호 칙결과 정교금 만남
⑪	굴에서 설인귀의 천문 지리서와 도술책 획득	"	굴에서 설인귀와 낭낭의 만남과 전포·강편·활·보검·천서 획득
⑫	설인귀의 봉황성, 천산, 월호성 탈취	설인귀의 봉황성, 천산 탈취	左同
⑬	×	左同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만남과 울지경덕의 장사귀 약행 자각
⑭	설인귀·진희옥·울지경덕	"	설인귀와 합소문의 반복적

	과 합소문의 대결		대결과 설인귀의 승리
⑮	×	"	장사귀의 설인귀 독목관 탈취에 대한 거짓 보고
⑯	×	"	장사귀·장지룡의 설인귀·9장수의 살해 시도와 위기 극복
⑰	합소문과 당태종의 대결과 당태종의 패배	"	左同
⑱	×	"	합소문과 설인귀의 대결과 설인귀의 승리
⑲	×	"	장사귀의 설인귀 존재에 대한 반복적 부정
㉑	×	"	장사귀와 설인귀의 내기 대결과 설인귀의 승리
㉒	×	"	설인귀의 마천령과 월호성 탈취와 합소문과의 대결의 승리
㉓	×	"	설인귀와 목각대선의 대결과 목각대선과 이경의 대결
㉔	설인귀의 합소문 죽임	"	합소문과 설인귀의 대결과 합소문의 항복
㉕	당태종의 장사귀 처형	"	左同
㉖	×	"	합소문의 혼령의 설인귀의 아들 살해
㉗	설인귀와 유소저의 혼인	"	설인귀와 가족의 상봉
㉘	설인귀와 도영 공주의 남만 정벌	×	×
㉙	설인귀와 도영 공주의 혼인	×	설인귀와 변소저의 혼인

위 표에서도 확인되며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설인귀전> 경판본의 서사는 <소대성전>의 서사와 유사한데 경판 40장본보다 30장본의 서사가 더 유사하다.²⁷⁾ <소대성전>은 부모를 잃고 유랑하던 소

27) 서대석(1984), 앞의 책, 307~312쪽; 이유진, 「<설인귀전>의 이본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2009, 45, 55, 68, 80쪽.

대성이 이승상의 눈에 띄어 사위가 될 뻔했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 영웅적인 능력을 획득하고 노국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던 채봉과 혼인하는 서사로 전개된다. 그리고 <소대성전>의 경우 현전하는 경판본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판본의 수가 확인된다.²⁸⁾ 따라서 <소대성전>은 조선 후기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소대성전>이 <설인귀전>과 함께 전기수가 낭독했던 작품이었다는 『추재집』의 기록을 참조한다면 <설인귀전>의 경판본 역시 <소대성전>과 같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작된 판본으로 보인다. 특히 40장본보다 30장본이 더욱 <소대성전>의 서사와 유사한 측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 생각된다. 대중성을 확보한 경판본 소설의 경우 장수를 줄이면서 출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소대성전>은 <조웅전>·<현수문전> 등의 작품과 함께 귀족적 영웅소설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경판본에서 설인귀는 전형적인 귀족적 영웅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판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는 위 표의 ②~④, ⑥과 ⑦⑨, ⑬~⑯, ⑱~㉑, ㉕에서 확인되듯이 설인귀와 유소저와의 애정담 및 애정 갈등은 축소되고 장사귀 및 합소문과의 갈등이 부각되어 있다. 활자본에서 제시되어 있는 장사귀 및 합소문과의 갈등과 대결 구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형상화된 설인귀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활자본에서 설인귀는 장사귀의 지속적인 투군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당태종의 동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탈취하고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장사귀의 반복적인 악행에도 굴하지 않고 합소문과의 반복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합소문의 항복을

28) <소대성전>의 경판본은 36·30·24·23·21·17·16장본이 현전하는데 경판본으로 간행된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판본의 수로 보인다.

받아내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²⁹⁾ 그러므로 경판본과 달리 활자본에서 설인귀는 민족적 영웅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설인귀정요사략>에서 더욱 부각되어 있다. <설인귀정요사략>에서는 설인귀와 유소저의 애정담은 등장하지조차 않으며 장사귀 및 합소문과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인귀와 양견훈·누살 연수·갈연희·오희달 등 고구려 장수들과의 대결 장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장사귀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설인귀는 수양제를 살해했던 고연광 삼형제와 혼자 대결하여 승리하며 목숨을 걸고 합소문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³⁰⁾ 따라서 <설인귀정요사략>은 허구화된 설인귀의 서사 가운데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부각된 작품으로 보인다.

<설인귀정요사략>은 가장 먼저 설인귀의 허구화된 서사로, 42회로 구성된 활자본은 <설인귀정동>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활자본보다 경판본이 선행했을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형상화된 설인귀의 서사는 조선에 유입되면서 귀족적 영웅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다가 민족적 영웅으로 형상화

29) 활자본의 결말에서 설인귀는 합소문의 영혼에게 아들을 잃기까지 한다.

(상략)호련 슈플 속으로서 혼 괴물이 소리 질너 나오니 쇠뿔니 머리에 도치고 입이 슈홍갓튼 거서 그 아히을 물어다라 들거늘 인귀 보고 덕경호야 급히 활을 다려 그 괴물을 바라고 쏘니 그 괴물은 아니 맞고 그 아히가 마저 것구러지거늘 인귀 덕경실 식호야 탄왈 너분명이 그 괴물을 쏘아는디 그거슨 아니맞고 엇지 사름을 맞쳐 상혈 줄아라스리오호고 차탄호물 마지안이흐니 원릭 이 괴물은 합소문의 영혼이니 그 아들을 죽여 원슈를 갑호미러라(<백포소장 설인귀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 6, 은하출판사, 1983, 527쪽)

30) <설인귀정요사략>은 허구화된 여타의 설인귀 서사에서 설인귀의 혼인으로 종결되는 결말과 달리 고구려왕이 당태종에게 항복하고 태종이 고건장을 고구려왕으로 봉하는 내용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중국인의 민족의식이 상당히 부각된 작품이라 생각된다.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층에게 향유된 것으로 생각된다.³¹⁾

3.2. 당태종: 정복욕에 충실한 군주의 표상

설인귀와 달리 당태종은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 모두 등장한다. 세 작품에서 당태종은 공통적으로 정복 전쟁을 발발하여 이민족과 대결하는 군주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태종이 이민족을 정복하여 당을 개국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당진연의>에서 울지경덕과 관련된 서사를 차용하여 개작한 <울지경덕전>은 태종이 적국의 장수 울지경덕을 회유하여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종결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여·당 전쟁의 서사로 전개되는 <설인귀전>에서 태종은 백제국의 사신이 고구려 장수 함소문을 만나 예물을 빼앗기고 자신을 욕하는 글을 얼굴에 새긴 것을 보고 요동 정벌을 결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태종전>에는 태종이 일으킨 정복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鬼卒들을 나타나 태종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한다. 따라서 당태종은 <울지경덕전>·<설인귀전>·<당태종전>에서 공통적으로 정복욕에 가득 찬 군주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다음의 각 인용문은 <울지경덕전>·<설인귀전>·<당태종전>에서 태종의 정복욕이 드러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① 화설 덕당 티중 황제 리세민이 룡봉지자와 텃일지표로 텃하가 어지러움을 인햐야 영웅을 결납햐야 사방을 정벌홀시³²⁾

② 이썩 빅제국 스신이 와 공현홀시 낫치 거른 겁을 가리왔거늘 태종이 연고

31)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설인귀전>의 대중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통속적인 측면과 민족의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의 전개될 수 있었다.

32) <울지경덕실기>,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1, 은하출판사, 1983, 117쪽.

를 무른대 스재 읍주 왈 신이 동노의서 고려국 합쇼문을 만나오니 길홀
막고 가진 네물을 다 앓고 늦치 즈자하여 너치오니 얼굴이 흉악하여 겁으
로 가리와는이다 태종이 그 면스를 아스라 하고 보니 당테를 무슈히 즐육
하여 삭였는지라 태종이 건필의 대로 왈 이제 뇨격이 빅제의 진공을 앓고
덥을 슈육함미 심하니 못당히 병을 일위혀 치고져 하느니 뉘 능히 선봉이
되리오(하략)³³⁾

③ 판관이 늙흔 디 올라 바라보고 놀나 왈 폐히 이제는 인간의 못나가게 되
엇는이다 황계 경문 왈 어인 년고로 그러호도 판관 왈 폐히 세상의 이서
천하를 닷토실 썬의 저 슝드리 전장의 무죄히 죽엇는고로 원을 품었다
가 원슈를 갑흐려 하고 드러오니 이 일은 진실노 부쳐라고 구치 못홀가
하느이다 (중략) 그 귀졸이 일시의 다라들나 하거늘 즈세히 보니 혹 목도
업고 손도 업스며 혹 창의도 썰니며 혹 살도 마쨌더라 그 귀졸이 틱쫘을
웨여 쓰며 왈 황계 천하를 통일코 천즈되여시니 다행하거니와 우리는 무
삼죄로 이 몸이 되어 무슈흔 고히으로 천음우습홀계 거리로 단이되 원통
하물 알 지 업고 설문 말을 고히 곳시 업스니 황계를 죽여 한을 풀리라³⁴⁾

그러나 이러한 태종의 정복욕에 대한 시각은 작품에 따라 상이하게 제
시되어 있다. <울지경덕전>의 경우 태종의 정복 전쟁은 정당화되어 있다.
하지만 <설인귀전>에서 태종은 대응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군주의 모습
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인귀전>에서 태종은 요동 정벌을 위해
꿈에서 본 설인귀를 찾지만 장사귀의 방해로 쉽게 찾지 못하고 정교금이
울지경덕을 모해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등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
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동 정벌을 위해 군사들과 배를 타고 바
다를 건너다가 대풍이 불자 두려워 東征을 포기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나

33) 경판 40장본 <설인귀전 단>, 『<설인귀전> 연구』, 132쪽.

34) 경판 26장본 <당틱중전 권지단>, 10-2~11-1쪽.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한다.³⁵⁾

④ 태종은 문무 공경으로 룡주에 올으스 습성포항에 횡선하야 습일횡하더니
 홀연 덕풍이 니러나 파도가 흉용하고 물결이 두어길 높히 되거날 태종이
 면져 토식하야 아모리 할줄모르고 삼군이 비속에 안접지 못하고 점점 심
 하미 턱치 능히 부지하야 안접지 못하미 심중에 두려하야 무공다려왈 짐
 이 동정치 못하리로다(중략)태종이 비로소 정신을 진정하야 무공다려 왈
 짐이 동정치 못하고 도라가리라³⁶⁾

이처럼 <설인귀전>에서 태종에 대한 시각은 비판적인데 태종이 합소
 문에게 항서를 쓰는 장면에서 더욱 확연하게 제시되어 있다.³⁷⁾

그리고 <당태종전>에서도 태종의 정복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확인된다. <당태종전>에서는 앞의 인용문 ③과 같이 태종의 정복 전쟁에
 서 억울하게 희생된 귀족들이 태종을 살해하고자 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종은 자신을 살해하고자 하는 귀족들을 위로하고자 이
 승에서의 선행으로 쌓인다는 저승의 공간에 있는 재물을 주려고 했으나
 정작 태종의 공간에 재물은 없었다.³⁸⁾ 결말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하
 지만 <당태종전>에서 태종은 정복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정작 가족과
 민중들에게 비판받는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당태종은 <울지경덕

35) 심지어 풍량이 그친 후에도 태종은 정교금의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동정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여 설인귀의 도움으로 해수를 보지 못하게 하여 바다를 건넌다.

36) <백포소장 설인귀전>, 『구할자본고소설전집』 6, 은하출판사, 1983, 417~418쪽.

37) 태종은 서무공의 말을 듣지 않고 봉황을 활로 쏜다. 이때 합소문은 봉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태종이 봉황산에 있음을 알고 당의 장졸들과 대결한다. 대결에서 당의 장
 졸들이 열세해 지자 태종은 눈물만 흘린다(<백포소장 설인귀전>, 앞의 책, 437쪽).

38) 결국 태종은 저승의 공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둔 장상이라는 인물에게 재물을 빌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고 죽음을 면한다.

전>·<설인귀전>·<당태종전>에서 공통적으로 정복욕에 충실한 군주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의 정복 전쟁에 대해 <울지경덕전>에는 우호적인 시각이, <설인귀전>·<당태종전>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3.3. 울지경덕 : 忠節의 化身으로의 다면적 조명

울지경덕 역시 당태종과 마찬가지로 <당태종전>·<울지경덕전>·<설인귀전>에 모두 등장한다. 작품에 따라 제시된 울지경덕의 면모는 상이하지만 군주에게 충성하는 모습은 동일해 보인다. <당태종전>의 경우 당태종의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기에 울지경덕이 등장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진숙보와 함께 태종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옆을 지키는 충직한 장수로 형상화되어 있다. 단국대 소장 23장본 <당태종전>에서는 울지경덕이 태종의 병상을 지키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태종의 병에 차도가 생기자 신하들이 태종의 병상 주위에 울지경덕의 화상을 그려 붙여 태종의 병이 회복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태종전>의 경판 26장본과 단국대 소장 23장본에서 당태종에 대한 울지경덕의 충절이 드러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 ① (상략)제신을 모호시고 아무리 계방하되 종시 물너가지 아니하고 눈을 감으면 밤낮업시 압히 와 셋거늘 울지경덕 진숙보 등이 구갑쥬하고 시립
흐엿시미 놓이 감히 각그이 오지 못흐나 공중의셔 황제를 부르지져 우니
 황제 일노 인호여 병환이 점점 침중흐사 빅약이 무효흐시니 만쥬 빅관과
 녹궁 비빙이 황황망쥬호여 아무리 흘 줄 모로더라³⁹⁾

39) 경판 26장본 <당태종전 권지단>, 5-1~5-2쪽.

② (상략)득병호스 점 〓 위중호시니 고히호여 점을 쳐보니 동분으로 귀신이 드러 스통호미라호니 울지경덕 등을 갑옷투구의 창금을 빅기들고 스펜문의 슈야로 슈직호니 귀졸이 감히 들어오지 못호여 병세 츠도잇는지라 경신이 도라오시니 슈직호는 신하 십여일신〓호엿시니 병이 날가호나니 각 〓 물너가 조리호고 경의 화상을 그려붓치라호시니 즉시 환장이올 명호여 울지경덕과 방불호 더장의 모양으로 그리고 갑옷 투구의 기치 창금을 갖초와 그려붓치니 일호도 틀이미 엽더라 화설 놓이 침노치 못호여 물너가니 황제 병환이 미복호시니 만민니 즐거오를 어기지 못호나 무심호미 엿지 장구호리오⁴⁰⁾

이처럼 <당태종전>에서 울지경덕은 용맹하고 영험한 태종의 충신으로 등장한다. 울지경덕의 태종에 대한 충절은 <울지경덕전>에서도 확인된다. 울지경덕이 태종에게 충성하는 모습은 당에 귀순한 후 황장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태종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에서 가장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⁴¹⁾ 울지경덕은 당에 귀순하기 전에는 삭주 유무주 휘하의 장수였는데 귀순하기 전 자신 유무주에 대해서도 충성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울지경덕의 유무주에 대한 충절은 유무주가 죽자 자결하고자 하며 삼년상을 결심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⁴²⁾ 다음의 인용문은 <울지경덕전>에서 울지경덕의 당태종과 유무주에 대한 충절을 드러낸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40) 단국대 소장 23장본 <당태종전>, 9-2~10-1쪽.

41) <당진연의>에서 울지경덕은 진왕을 척결하고자 하는 제왕과 연왕을 죽여 진왕을 태종으로 등극하게 하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울지경덕전>에서 이러한 면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 당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귀순을 권유받자 울지경덕은 유무주의 머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유무주의 머리를 가지고 오자 통곡하면서 자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결을 만류하자 울지경덕은 유무주의 삼년상을 지낸 후에 귀순할 뜻을 밝히면서도 당으로 귀순하는 것이 유무주에 대한 不忠이라고 생각한다.

③ 문득 죽림중으로서 황장이 니다라 큰 작도를 드러 진왕의 목을 향하여 지르거날 왕이 〃를 보고 급히 말을 도로혀 다라나니 고죄 덕경흐스 급히 경덕을 불러 진왕을 구하라하시니 경덕이 급히 니다라외여왈 격장은 아쥬를 상치말나 황장이 경덕을 마즈 썩화 삼합에 칼을 드러 버히고즈 흐거늘 경덕이 칩을 들어 칼을 막으며 승시하야 흐치로 쳐죽이니 좌위 다라나거날 고죄왈 황장이 성지를 어기엿스니 죽님이 맛당타⁴³⁾

④ 경덕이 급히 목함을 열고 보니 과연 무주의 머리어늘 경덕이 방성디곡흐고 쌍에 내려 스빅하기를 맞치미 문득 칼을 빼혀 자문코져흐거늘 당금이 급히 붓들고 일오디 장군이 엿지 덕의를 잇고 일시 지분을 품어 스스로 죽고져하시나노 경덕왈 당의 임의 우리 주인을 죽였거늘 니 찰아리 죽을 지언정 엿지 당에 향흐리오(중략)향이불향은 니 쥬군의 복제를 맞친후 곁흐리라 당검왈 몇날이나 한흐려흐는노 경덕왈 즈고로 군부의 상은 삼년이 니라⁴⁴⁾

울지경덕의 태종에 대한 충절은 <설인귀전>에서도 확인된다. <설인귀전>에서 확인되는 울지경덕의 충절은 설인귀의 공로를 탈취하는 장사귀의 악행을 밝히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울지경덕전>에 등장하는 울지경덕과 달리 <설인귀전>에 등장하는 울지경덕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은 부족한 인물로 등장한다. 울지경덕은 <설인귀전>의 경판본에서는 설인귀의 도움으로, 활자본에서는 장사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⁴⁵⁾ 게다가 활자본에서 울지경덕은 장사귀의 술수에

43) <울지경덕실기>, 앞의 책, 186쪽.

44) <울지경덕실기>, 앞의 책, 168쪽.

45) <설인귀전>의 경판본에서는 유지분, 합소문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설인귀의 도움을 받으며 활자본에서 태종이 요동 정벌을 계획하면서 울지경덕에게 금사자를 들어 보라고 했을 때 울지경덕은 듣지 못했고 태종의 명령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설인귀의 공로를 가로채는 장사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쉽게 넘어가는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면모는 울지경덕이 장사귀에게 유인당하여 술을 마시고 설인귀를 찾지 못해 두 아들에게 질책당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⑤ 뉴지섬의 으들 지분이 쏘흔 내드라 싸호거늘 경덕이 냥장을 디적허다가 덩히 위급허더니 설인귀 진등의 이서 경덕의 위턱흐를 보고 분연히 내드라 왓 반적은 우리 노장을 히치 말나 나는 동달 죽인 설인귀라 하며 다라 드러 접전허니 뉴지섬 부지 저당치 못하여 드라나거늘 썩로지 아니코 경덕을 구하여 도라온지라⁴⁶⁾

⑥ (상략)경덕이 눈을 부릅쓰고 평싱 힘을 다하여 치니 못기를 다하고 니러 안자며 웃고 왓 경덕 필부는 나의 칩를 한번 견디라 경덕이 대경하여 답지 아니코 돌혁을 도로혀 드라나니 윈넛 합쇼문의 용력이 아니라 두선싱의 요술을 힘닙으미라 쇼문이 경덕을 썩로더니(하략)⁴⁷⁾

⑦ 경덕이 임의 취허얏는지라 쥬홍이 발작하여 디갈왓 축싱이 엇지 감히 나의 흥을 파흐는다 이제 임의 숨기지 못허리니 쾌히 먹으리라 하고 쥬석을 버리고 장환과 흥가지로 슈십비를 먹으며 왓 선봉의 마음을 아지 못허얏더니 이제야 흥후흔줄 알니로다 인허야 디취허니 이에 남은 호쾌는 장환을 미리 맛기고 즈거늘 울지표 경왓 이 일이 엇던일이 관디 선봉의게 미리 맛기리잇고 윈쉬 임의 디취허얏는지라 엇지 응몽현신 촌질 싱각이 잇스리요 이에 쥬지저왓 축싱이 무어슬 아노라 감히 나의 흥닐을 막는다하고 스스로 즈거늘 울지표 등 형계 엇지홀길 업서 야야를 붓드러 장중으로 드러가니(하략)⁴⁸⁾

46) 경관 40장본 <설인귀전 단>, 이운석, 『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140쪽.

47) 경관 40장본 <설인귀전 단>, 앞의 책, 150쪽.

48) <백포소장 설인귀전>, 앞의 책, 459~460쪽.

또한 울지경덕은 진희옥이 찾아왔을 때 쉽게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아 진희옥이 함소문과 대결하다가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⁴⁹⁾ 이처럼 <설인귀전>에서 울지경덕은 옹졸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면모를 드러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울지경덕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당과 태종을 위한 충절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울지경덕은 <당태종전>·<울지경덕전>·<설인귀전>에서 충절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면모는 작품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4.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 형상화의 시대적 의미

3장에서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 등장하는 당태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설인귀와 울지경덕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논의했다. 태종은 여·당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고구려의 침략을 후회했고 전쟁 중 사망했다. 설인귀는 여·당 전쟁뿐만 아니라 나·당 전쟁에서도 활약했는데 나·당 전쟁에서 당은 패배했다. 그리고 『신당서』와 『자치통감』에서 울지경덕은 저수량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과 함께 태종의 고구려 침략을 반대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⁵¹⁾

49) 진희옥이 선봉대장이 되어 변영의 장졸들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심만 인마를 거느리고 울지경덕이 있는 성으로 왔지만 울지경덕은 과거 자신을 좋지 않게 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문을 열어 주지 않고 다른 성문으로 돌아가게 한다.

50) <설인귀전> 이후의 서사로 전개되는 <서정기>에서 울지경덕은 모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설인귀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를 천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충절을 부르짖으며 자결하는 인물로 등장한다(<서정기>,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544쪽).

51) 방향숙,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 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19, 2008, 331~336쪽; 서영교, 『당태종의 고구려 친정과 작전 왜곡-요동성 전투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6, 2013, 212쪽.

그러므로 소설 속에서 태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설인귀와 울지경덕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은 이들에 대한 시대적 담론을 제시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서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형상화된 방식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4.1. 요동 회복의 염원과 한민족의 역량 표출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은 여·당 전쟁에서 활약했던 중국인의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여·당 전쟁은 당태종이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요동 지역은 중국의 수·당 시대 고구려를 일컫는 별칭으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다.⁵²⁾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은 고구려의 완승으로 종결되었기에 중국인들의 피해 의식과 요동 지역에 대한 정복욕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³⁾ 그렇기 때문에 당태종은 여러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요동 정벌을 단행했다고 생각된다.⁵⁴⁾

하지만 당태종의 요동 정벌은 大敗로 종결되었기에 조선시대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과 같은 작품들이 성행할 수 있었던

52)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6, 60쪽.

53)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의 패배로 인한 중국인들의 피해의식은 <설인귀정요사략>에서도 확인된다.

황제는 노인을 불러 해골이 산처럼 쌓인 까닭을 물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폐하! 이 백골들은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이곳에서 죽은 수양제의 이십만 대군 이옵니다. 바로 그들의 해골이 이렇게 산처럼 쌓인 것입니다. 하온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박재연 역,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11, 한국중국소설학회, 1992, 74쪽)

54) 방향숙(2008), 앞의 논문, 313~328쪽.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조선시대 요동 지역의 회복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현상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인들은 조선이 고구려의 전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으며 수와 당의 침입을 물리친 사실로 인해 고구려를 천하의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⁵⁵⁾ 세조와 성종을 비롯하여 숙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국왕들은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숙종이 안시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숙종실록』에 남아 있다.

옥당관을 소대하여 『동국통감』을 강하였는데, 고구려 안시성의 일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한탄하기를, "고구려는 작은 나라인데도 성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름이 나서, 수·당의 백만 군대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이 고구려에 비하여 배나 크고 산천이 험준한 것은 고금이 같은데도, 병자년의 난리에 오랑캐 병졸이 마치 무인지경같이 밀려 들어와, 마침내 하성하는 치욕을 당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면 어느새 너무 마음이 아프다."⁵⁶⁾

위 『숙종실록』의 기록을 참조했을 때,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국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간섭이 빈번해지면서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강성했던 고구려의 국력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고려 말 최영은 무주공산이었던 요동 정벌을 시도했고 조선 시대 정도전 역시 요동 정벌을 준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민족의 고토였던 요동 회복에 대한 의지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55) 정진현(2004), 앞의 논문, 594~604쪽.

56) <옥당관을 불러 『동국통감』의 안시성 싸움 등을 강하다>,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12월 7일,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은 당태종의 요동 정벌을 단행했을 당시 활약했던 인물들의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소설 속에서 요동 정벌을 단행했던 태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투영되어 있지만 설인귀와 울지경덕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경관 <설인귀전>과 <울지경덕전>은 귀족적 영웅소설의 유형에 포함될 정도로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영웅적인 면모는 부각되어 있으며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에서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은 신격화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중국인들과의 대결에서 고구려인들은 승리했고 당태종의 요동 정벌은 大敗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서 형상화된 중국인들의 모습은 조선인들의 요동 회복에 대한 염원과 한민족의 역량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4.2. 이상적 통치자의 부재 현실과 덕목의 제시

중국 장편소설 <설인귀정동>·<서유기>·<당진연의>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 각각 단편소설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으로 개작된 것은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에 대한 조선인들의 지극한 관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⁵⁸⁾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작품 속에서 당태종은 정복욕에 충실한 군주의 모습으로 제시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부각되어 있지만 설인귀와 울지경덕은 각각 용맹과 충절을 갖춘 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우호적인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⁵⁹⁾ 설인귀와 울

57) 김한규(2004), 앞의 책, 540~541쪽; 한명기(2006), 앞의 논문, 351쪽.

58) 중국 변역소설의 재창작 운동은 소설의 상업화 과정에서 기승을 부린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양승민(2011), 앞의 논문, 406쪽 참조).

59) 당태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설인귀와 울지경덕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설인

지경덕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중국에서 형성된 설인귀 서사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이 여·당 전쟁 당시 활약했던 적국의 장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에서 <설인귀전>과 <울지경덕전>이 개작될 정도로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용맹과 충절이 부각된 것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입증하는 현상이다.

소설 속에서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용맹과 충절은 각각 장사귀와 송금강의 모해로 인해 부각된다. 설인귀는 자신의 공로를 반복적으로 가로채는 장사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들과 대결한 후에 승리하여 태종을 죽을 위기에서 구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울지경덕은 송금강의 질투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유무주에 대한 충절을 지키는 인물로 결말에는 죽을 위기에 처한 태종의 목숨을 구하고 당나라의 개국원훈이 된다. 따라서 비록 적국의 장수였으나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용맹과 충절은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한 귀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설인귀와 울지경덕이 신격화된 고사가 민간에 전승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용맹과 충절은 조정에서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종실록』과 『선조실록』에 등장하는 설인귀에 대한 평가를 일부 제시한 것이다.

□ 당태종은 무용이 뛰어난 군주로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켰으며 장수는 이적·이정·설만철·도종·장량·설인귀같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 여간하여 나오지 않는 인재인데 이 같은 세력으로써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천군의 무게로써 새 알을 누르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⁶⁰⁾

귀정동>·<서유기>·<당진연의>에서도 확인된다.

60) <북정을 반대하는 홍문관 부제학 김심 등의 상소문>, 『성종실록』, 성종 22년 5월 30일,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② 우리 장사들이 과연 저 당나라 때 설인귀가 세 번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서 천산을 평정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겠으며, 후한 때 두헌이 선우를 쳐부수고 연연산에 올라 공적을 돌에다 새긴 것처럼 할 수가 있겠는가.⁶¹⁾

위 인용문에 제시된 것처럼 조선시대 설인귀는 조선의 장수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설날 임금 이 신하에게 내려주었다는 문배에 처용과 함께 울지경덕의 모습이 제시되었으며 19세기 서울 보문사의 대웅전의 佛畵인 <신중도>에도 울지경덕의 모습이 제시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울지경덕의 충절은 이미 조선시대 널리 귀감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²⁾ 이와 같은 조선시대 설인귀와 울지경덕의 용맹과 충절에 대한 우호적 담론들은 중국 장편 연의소설 <설인귀정동>과 <당진연의>가 각각 단편 귀족적 영웅소설 유형의 <설인귀전>과 <울지경덕전>으로 개작될 수 있었다.

<설인귀전>과 <울지경덕전>은 <소대성전>·<조웅전>·<유충렬전>과 같은 귀족적 영웅소설의 서사와 같이 집을 떠난 후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 용마와 갑주 등을 받고 영웅적 능력을 획득한 후에 이민족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서사로 전개된다. 귀족적 영웅소설은 조선 후기 간행된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설 유형으로 혼란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상적 통치자가 부재하는 현실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제시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홍길동전>·<임경업전> 등 민중적 영웅소설은 실존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귀족적 영웅소설의 경우 실존 인물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61) <오랑게에게 급첩하는 일을 논하다>, 『선조실록』, 선조 38년 8월 25일,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62) 전경옥,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2006, 452쪽; 김현중(2015), 앞의 논문, 49쪽.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그러나 비록 적국의 장수였으나 설인귀와 울지경덕은 중국의 실존 인물이며 작품 속에서 이들은 용맹과 충절을 갖춘 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실제 조선에서도 이들은 귀감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서 설인귀와 울지경덕이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이상적 통치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이상적 통치자가 부재한 조선의 현실과 함께 설인귀와 울지경덕이 보여준 용맹과 충절이야말로 이상적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임을 제시한 면모로, 이러한 덕목을 갖춘 통치자의 출현을 희구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을 대상으로 여·당 전쟁에서 활약했던 중국인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이 형상화된 방식과 시대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 거듭된 호란 이후 약화된 국력으로 인해 강성했던 고구려 국력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설인귀 서사가 유입되고 당태종·설인귀·울지경덕이 신격화된 고사가 전승되고 있었기에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이 간행될 수 있었다. 둘째,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서 설인귀는 귀족적 영웅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역행하는 모습으로, 당태종은 정복욕에 충실한 군주의 표상으로, 울지경덕은 충절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었는데 당태종과 울지경덕의 경우 구

체적인 면모는 작품에 따라 상이한 면모를 드러냈다. 셋째, <설인귀전>·<당태종전>·<울지경덕전>에 형상화된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의 모습을 통해 요동 회복에 대한 염원과 한민족의 역량을 표출하고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이상적 통치자가 부재하는 조선의 현실과 용맹과 충절이야말로 이상적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을 중심으로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국인의 형상에 대해 조명했다. 그러나 이 세 인물 외에도 진속보와 정교금 등 실제 역사와 소설 속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 인물들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설인귀와 그 서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내지 못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한 설인귀·당태종·울지경덕을 포함하여 진속보와 정교금 등 여·당 전쟁과 관련된 인물은 <서정기>에도 등장하며 설인귀의 서사는 <설정산실기>와 <이화정서전>에도 일부 확인된다. 하지만 <서정기>·<설정산실기>·<이화정서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⁶³⁾ 이 세 작품 역시 설인귀 서사의 대중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정기>·<설정산실기>·<이화정서전>을 포함한 설인귀 서사의 대중성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해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63) 설인귀의 아들 설정산의 서사로 전개되는 <설정산정서>를 대상으로 여장군 번리화를 주목한 연구는 진행되었다(조용호,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역할 모델 연구』, 『한국고전연구』 30, 2014, 263쪽).

참고문헌

경판 40장본 <설인귀전 단>

경판 35장본 <출향전 단>

경판 30장본 <설인귀전 단>

경판 26장본 <당티종전 권지단>

경판 26장본 <울지경덕전>

단국대 소장 23장본 <당태종전>

<백포소장 설인귀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 6, 은하출판사, 1983.

<서정기>,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울지경덕실기>,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1, 은하출판사, 1983.

박봉춘 구전, <세민황제본풀리(世民皇帝本解)>, 『조선 무속의 연구』상, 조선인쇄주식회사, 1937, 300~309쪽.

박재연,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8, 한국중국소설학회, 1991, 50~73쪽.

박재연,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9, 한국중국소설학회, 1992, 30~50쪽.

박재연,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10, 한국중국소설학회, 1992, 62~83쪽.

박재연, 「<설인귀정요사략>」, 『중국소설연구회보』 11, 한국중국소설학회, 1992, 73~93쪽.

사마광, 『자치통감』, 서해문집, 2008.

조수삼, 『秋齊集』

조희웅·노영근·임주영, 『경기북부 구전자료집』 I, 박이정, 2001.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조선 지배층의 중국 인식』, 푸른 역사, 2009, 1~375쪽.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 세시기』 I, 민속원, 2003, 1~394쪽.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해동문화인쇄사, 1991, 1~281쪽.

- 권도경,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 양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273~310쪽.
- 권도경, 「설인귀 전설의 존재양상과 서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2007, 381~416쪽.
- 권도경,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정신문화연구』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31쪽.
- 김예령, 「<설인귀전>의 번역, 변안 양상 연구」,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349~375쪽.
-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바다출판사, 1998, 1~552쪽.
- 김유진, 「<당태종전> 연구」, 『청람어문교육』 4, 청람어문학회, 1991, 91~187쪽.
-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1~742쪽.
- 김현중, 「19세기 경기지역 신중도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45~69쪽.
- 민관동·장수연·김명신 공저, 『한국소장 중국 통속소설의 판본 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 1~574쪽.
- 박경철, 「麗唐戰爭의 再認識」, 『동북아역사논총』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137~199쪽.
- 방향숙,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 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19,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309~345쪽.
- 변동명, 「전통시기의 감악산 숭배와 산신 설인귀」, 『역사학연구』 42, 호남사학회, 2011, 1~39쪽.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1~391쪽.
-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설화, 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68, 1~175쪽.
- 서영교, 「당태종의 고구려 친정과 작전 왜곡-요동성 전투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211~225쪽.
- 서혜은, 「경관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200쪽.
- 양승민, 「<설인귀전>의 소설사적 존재 의미」,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389~413쪽.

- 엄태웅, 「조선후기 설인귀 인식의 맥락과 문학적 반영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177~225쪽.
- 이금재, 「〈설인귀전〉과 〈설인귀정동〉 수용과 그 의미」,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0, 1~84쪽.
- 이유진, 「〈설인귀전〉의 이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1~118쪽.
- 이유진, 「〈설인귀전〉의 전승과 통속화 경향」, 『중국학연구』 56, 중국학연구회, 2011, 55~79쪽.
- 이윤석, 「〈설인귀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1~561쪽.
- 장수연·민관동, 「설인귀 고사의 원천에 관한 일고-설인귀 고사의 국내 수용과 전승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4,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73~97쪽.
- 전경욱,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2006, 437~460쪽.
- 정재호, 「제주도 특수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연구-매일과 장상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4, 한국무속학회, 2014, 247~270쪽.
- 정진현, 「조선시대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18, 고구려발해학회, 2004, 591~620쪽.
- 조용호,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역할 모델 연구」,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45~275쪽.
- 최대림 역,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1989, 1~324쪽.
- 한명기, 「조선 시대 한중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고구려의 강성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337~366쪽.

ABSTRACT

A Imagery Method and Meaning of that Times about Chinese Participated in War between the Goguryo and Dang in Classical Novels

Seo, Hye-eun

This paper is a study on imagery method and meaning of that times about Chinese participated in war between the Goguryo and Dang in 〈Seol-In-Gui-Jeon〉,

〈Dang-Tae-Jong-Jeon〉, 〈Ul-Ji-Gyeong-Deg-Jeon〉. These three novels are adaptation of 〈Seol-In-Gui-Jeog-Dong〉·〈Seo-Yu-Gi〉·〈Dang-Jin-Yeon-Ui〉. These are Chinese long novel and flowed in Jo-Seon Dynasty. And Seol-In-Gui, Dang-Tae-Jong, Ul-Ji-Gyeong-Deg were participated in war between the Goguryo and Dang.

A Manchu war repeatedly broke out in Jo-Seon Dynasty. Therefore national power was weaken. So people of Jo-Seon Dynasty longed for national power of Goguryo. And narrative of Seol-In-Gui was flowed from China. Besides Seol-In-Gui, Dang-Tae-Jong, Ul-Ji-Gyeong-Dege were deified and the story was transmitted. Therefore 〈Seol-In-Gui-Jeon〉·〈Dang-Tae-Jong-Jeon〉·〈Ul-Ji-Gyeong-Deg-Jeon〉 were able to published.

Seol-In-Gui only come on stage in 〈Seol-In-Gui-Jeon〉. Seol-In-Gui was embodied aristocratic hero in Seoul block novels and national hero in printed books. Seoul block novels earlier were published than printed books. And Seol-In-Gui was embodied national hero in Chinese Seol-In-Gui narrative. Accordingly Seol-In-Gui was changed from aristocratic hero to national hero in Jo-Seon Dynasty.

Dang-Tae-Jong come on stage 〈Seol-In-Gui-Jeon〉·〈Dang-Tae-Jong-Jeon〉·〈Ul-Ji-Gyeong-Deg-Jeon〉. Dang-Tae-Jong was jointly embodied that he had thirst for conquest. His behavior was justified in 〈Ul-Ji-Gyeong-Deg-Jeon〉. But his war of conquest was criticized in 〈Seol-In-Gui-Jeon〉·〈Dang-Tae-Jong-Jeon〉.

Ul-Ji-Gyeong-Deg also come on stage <Seol-In-Gui-Jeon> · <Dang-Tae-Jong-Jeon> · <Ul-Ji-Gyeong-Deg-Jeon>. His loyalty about Dang-Tae-Jong jointly was stood out in three novels. Besides loyalty about Yu-Mu-Ju was stood out in <Ul-Ji-Gyeong-Deg-Jeon>.

But Ul-Ji-Gyeong-Deg was lacked of problem solving and judgement in <Seol-In-Gui-Jeon>. And he is effeminate and narrow-minded. Seol-In-Gui, Dang-Tae-Jong, Ul-Ji-Gyeong-Deg's shape is revealed desire getting back of Yodong and the Han race's capability. Seol-In-Gui and Ul-Ji-Gyeong-Deg are generals of the enemy. But their dauntlessness and loyalty was exemplified public of Jo-Seon Dynasty. Therefore amicable perspective about Seol-In-Gui and Ul-Ji-Gyeong-Deg is revealed that ideal rulers are not in Jo-Seon Dynasty and public want ideal rulers.

Key Words

The war between Goguryo(高句麗)and Dang(唐), Goguryo, Seol-In-Gui, Dang-Tae-Jong, Ul-Ji-Gyeong-Deg, deification, desire of conquest, Yodong(遼東)

논문투고일 : 2017. 1.15
심사완료일 : 2017. 2. 5
게재확정일 : 2017. 2.18